

활성오니종균제 삼화 P-7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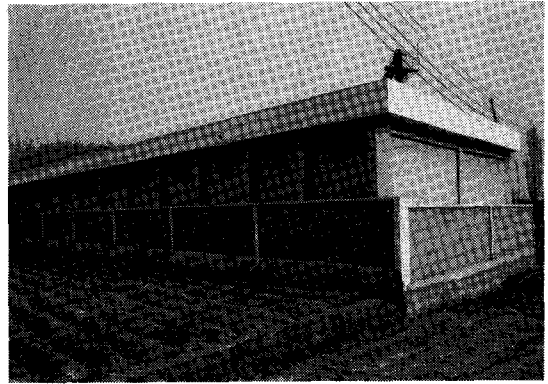
— 삼화정수처리주식회사 —

산 업고도화 물결이 밀려 오면서 물품생산에만 급급해온 우리 산업사회에 생태계의 멸종을 암시하는 수질오염의 악화는 전인류에게 큰 위압감을 불러 일러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삼화정수처리주식회사(대표 김덕열)는 1980년에 설립하여 활성오니종균제 발명특허(제17634호)를 획득하고 종업원 15명, 매출액 3억을 돌파하는 성실한 기업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회사 설립전까지는 일본등 외국의 값비싼 수입폐수처리 약품을 취급하였으나 외화절약및국내 폐수처리기술 향상을 위해서 국내 개발의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개발에 착수한지 7년여만에 고농도 미생물및 반응촉진 인자의 집합체인 P-7을 개발하였고, 최근에는 폐수처리현장 실무자가 가장 애를 먹는 사상균에 대해 조건적으로 작용하여 사멸시킬 수 있는 S-킬라를 개발, 경산 제일합섬등 여러회사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고 있으며, 아울러 탈수약품도 개발하여 현장 시험중에 있어 미생물을 응용한 전문 폐수처리약품 생산업체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직원은 연구개발에만 전념토록 하고 발명자인 대표와 전문 OPERATOR가 항상 현장에서 직접 OPERATING 한다는데 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로지 순수 국내기술진에 의해 염가의 폐수처리 약품을 개발 생산하므로써 외화를 절약하고, 날로 변모



대구공장 전경

하는 산업사회의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이 회사의 대표이자 발명자인 김덕열씨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계속 새로운 약품을 연구 개발하여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고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해야 하며, 안일한 자세는 결국 이 업계의 퇴보만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삼화 P-7의 특허를 현장에서도 인정받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제품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서울에 제품판매 및 OPERATING 전문 용역업체인 대양바이오케미칼(주)를 설립하여 폐수처리기술지원도 하고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수질오염방지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꿈을 가지고 오늘도 전 종업원이 신제품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